

제조업 쌀소비 84만 톤 '돌파' 역대 최대치 새로 썼다

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, 2025년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이 84만 톤을 넘어서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. 특히 떡·즉석밥·쌀과자 등을 포함한 식료품 제조업 부문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. 밥쌀 소비 감소세와는 대조적인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, 이는 쌀이 가공식품 산업의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치다.

[자료=국가데이터처 2025년 양곡소비량조사]

01 2023~2025년 사업체부문 쌀 소비량



Deep View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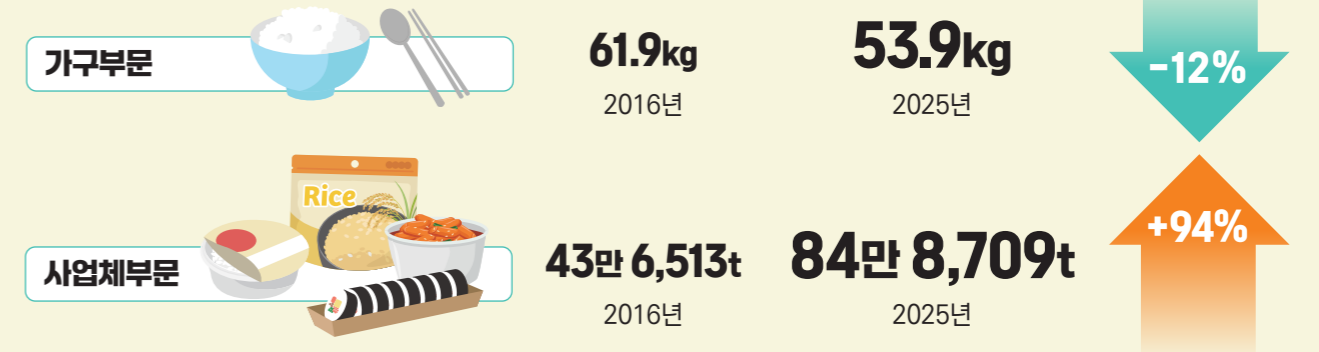
- 쌀 소비 중심축이 '가정'에서 '산업'으로 이동
- 쌀가공식품산업이 쌀 수요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부상
- 쌀 소비 정책도 소비자 중심에서 산업 수요 중심 설계로 전환 필요

Tip 사업체부문 쌀소비량 조사 언제부터?

사업체부문 쌀소비량 집계는 시작한 건 2011년부터다. 조사 첫해와 비교해 보면 2011년 약 40만톤에서 2025년 약 84만톤으로 110% 증가한 수치다. 2017년 49만톤, 2023년 62만톤을 각각 돌파했고 지난해 사상 최대 소비량을 기록했다.

쌀 소비 무게중심, 밥상에서 '생산라인'으로 이동 중

02 연도별 쌀소비량 가구부문 vs 사업체부문



늘어난 쌀, 어디로 갔을까? 떡·과자·당류가 쌀소비량 '견인'

03 사업체부문 쌀소비량 증가 업종 Top3



2025년 쌀소비 증가를 주도한 업종은 단연 떡류 제조업이었다. 떡류는 1년 새 6만t 이상 늘며 사업체부문 최대 소비 업종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. 전통떡을 비롯한 디저트떡, 떡볶이 등이 이 업종의 주력 제품으로 지난해 해외 시장에서의 꿀떡 열풍과 함께 세계인의 식탁에 안착하고 있는 떡볶이의 힘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.

국내 전통적인 제과 기업들이 이 업종에 속한다. 롯데웰푸드와 오리온, CJ제일제당 등이 자사의 스낵라인에 쌀과자, 글루텐프리 신제품을 속속 선보여 왔고 현미칩(푸디스), 쌀이요(청원생명농협) 등의 경우 기존 쌀과자 형태에서 벗어난 봉지과자로 건강식·영유아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.

전분제품 및 당류 역시 비교적 큰 폭(10.4%)으로 쌀소비량이 늘었다. 이 업종은 주로 원료곡으로 다양한 종류의 전분과 물엿 등을 생산해 식음료 산업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데, 다양한 제품에 쌀을 원료로 한 가공 곡물 사용이 증가했음을 시사한다.